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

부산대학교 도서관
유익봉·이수현·황은주
신주영·장항자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2. 업무개선의 실례 |
| II. 연속간행물 수집업무의 개선 | III. 덧붙이는 말 |
| 1. 연속간행물 수집업무에 도입된 개념 | 참고문헌 |

I. 들어가며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여러 차례에 걸친 이전과 운영상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최근 3~4년 사이의 저변적인 변화과정은 앞선 몇십년의 모습과는 본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몇십년 동안 축적된 양적변화가 질적변화로 바뀌지 않는 단순한 성장과정은 진정한 의미의 발전과정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논지에서 나온 것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최근의 변화는 점진적인 그 무엇이라기 보다는 실행의 모습을 띤 비약적인 발전의 한 형태이며,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원칙에 입각하여 준비되고 발현되는 일련의 과정이라

우리는 의미부영한다. 그것은 부산대학교내에서 도서관이 담당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을 생각하며, 그 역할을 확립해 낼 수 있는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이다. 이러한 모색은 도서관이 대학내에서 기본적인 자기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낼 수 있는 업무조직을 갖지 못했다는 자기반성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한 종래의 시간은 확립된 체계나 원칙과 방법에 의해 업무를 수행했다기 보다는 순간순간 개인의 의사나 일회적인 판단에 의한 부분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인으로서의 사서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기 보다는 혼란스럽게 진행되는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더우기 도서관내 사서직군의 입지라는 것도 행정직군의 업무를 받들어주는 들러리 내지 주변인처럼 여겨졌었던 사실 또는 부인할 수 없다.

오늘 우리는 '대학도서관 서비스 전문화의 문제'라는 논제밑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부산대학교내 연구와 학습의 핵심적인 자료보조기관이라고 하는 자기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을 몇가지 실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최근의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자기변혁노력이 업무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서직과 도서관계의 과제로 남아있는 전문인과 전문기관으로서의 영역확보모색이 저변적으로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우리의 변화노력이 전문성확보를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당면한 도서관적인 문제에 대해 취하게 되는 우리의 해결방안과 실천들이 사서와 도서관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전문성의 문제와 맥이 닿아 있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적, 조직구조적, 경험적 상황들이 있기도 하지만 한국적 도서관현실이 갖고 있

는 보편적인 모순 또한 많이 공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비록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현실이 특정한 도서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그것과 다른 점이 많다하더라도 우리가 공통으로 지향해야 할 전문성확보라는 관점에서 실험적이면서 동시에 본격적인 조직개선 노력을 이 기회를 통하여 발견하기 바란다.

Ⅱ. 연속간행물 수집업무의 개선

한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정보)은 그 사회의 시대적·지역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즉 사회발전의 진척정도와 특성에 따라 정보는 달리 규정되고,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여 정보는 개척되는 것이다. 정보(자료)와 가장 직접적이고 일관되게 관련된 사회적 정치인 도서관은 그래서 오랫동안 정보의 외부적·내부적 흐름에 깊이 관여해왔다. 즉 도서관이 담당하는 영역이 정보의 유통 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이다. 사회발전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고 그 구조 또한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변화를 가장 집약적으로 대변하는 지식은 가속화와 전문화가 표출되는 가장 첨예한 부분중의 하나일 것이다. 더우기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이 지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지식생산과 가장 직접적이고 관련된 사회적 장치인 대학에서의 지식(정보)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지식을 담고 있는 여러 매체중에서 신속성과 전문성으로 대표되는 연속간행물에 대한 요구는 실로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도서관은 연속간행물을 상대적으로 경시하여 온 경향이 많았다.

부산대학교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반 단행본에 집중적으로 쏟았던 관심이 연속간행물로 옮겨오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최근 들어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연속간행물도 단행본 못지않게 자료적인 역할이 크며 주제에 따라서는 단행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도서관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종전의 연속간행물 관련 업무는 지극히 비체계적이었고 수동적이었기에, 앞서 언급한 연속간행물에 대한 요구를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없는 조직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연속간행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은 도서관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여러 부서 중 내용적·외형적 변화가 가장 활발히 일어난 곳은 연속간행물실일 것이다. 1992년 1월을 기점으로 연속간행물실은 무질서한 업무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일반 단행본과는 달리 연속간행물의 구입, 열람, 정리, 보관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조직으로 인해 연속간행물실은 다른 어느 부서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다양성과 복잡성이 전체적으로 조직화·체계화 되어 있지 않았기에 업무의 혼란 또한 가장 컸던 부서였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이런 문제의 인식위에 업무조직의 전면적인 수정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 부산대학교 도서관 연속간행물실에는 연속간행물 관련업무의 변화를 가져온 몇가지 개념들이 도입되는데, 그것은 연속간행물 업무의 전환을 가져오는 방향성임과 동시에 당면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해 주기 바란다. 도입된 개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연속간행물현황과 그 예산현황을 참고로 하기 바란다.

〈표 1〉 연속간행물현황(1992년도)

	구 입					수 증					
	구미	일본	중국	국내	계	구미	일본	중국	국내	계	총계
본 관	446	194	14	144	798	55	113	42	2254	2464	3262
과학분관	554	65		34	653	8	35	3	126	172	825
의학분관	301	18		20	339	75	32		171	278	617
계	1301	277	14	198	1790	138	180	45	2551	2914	4704

〈표 2〉 예산현황(안)(1992년도)

구 분		본 관	의 대	계
구미계 연속간행물		인문·사회계열 50,000,000 자연·서지계열 300,000,000	90,000,000	440,000,000
동양계 연속간행물	국 내	10,455,800	1,163,600	11,619,400
	일 본	25,000,000	1,700,000	26,700,000
	중 국			
	국 내 학회지	8,876,000		8,876,000
신 문		7,650,000	360,000	8,010,000
계		401,981,800	93,223,600	495,205,400

1. 연속간행물 수집업무에 도입된 개념

1) 연속간행물 업무의 일원화

1992년도 이전에는 자료의 열람과 관리 관련 업무는 열람과 연속간행물실에서, 구입처리 관련 업무는 수서과 서무에서 담당하는 2중

구조로 인해, 연속간행물 담당사서의 학술잡지에 대한 파악정도가 불충실하고 자료처리에 미숙하여 업무처리 및 이용자서비스가 불완전한 실정이었다. 특히 구입관련 업무의 주도권이 서무에 치중되게 주어져 있어 업무의 주체가 뒤바뀐 상황이었다. 금년 1월 이래 연속간행물 자료 개발, 구독학술지의 구입관련 사항, 자료의 열람·제본·보관 등 자료대금지불을 제외한 모든 사항이 연속간행물 담당사서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업무내용 개편을 단행해 시행중에 있다.

✓ 2) 자료개발 개념

연속간행물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변화된 요소는 연속간행물실이 연속간행물 전반에 걸친 수서를 실질적으로 총괄한다는 점과 함께 무분별적으로 들이던 자료입수를 지양하고 대학도서관이 필수적인 기본장서(core collection)를 갖추며 동시에 자료의 질적 향상과 균형을 꾀하는 자료구성을 유도한다는 자료개발개념을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자료 구입요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속간행물실 업무가 열람과 보관에 치중했던 종전의 업무내용을 개선하여, 단행본 수서처럼 자료선정의 기회가 빈번히 연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선된 연속간행물구독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이 사서에게 있다는 인식하에 핵심적인(core) 연속간행물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 연속간행물의 질적향상과 전체장서 구성상의 균형을 가져오는 중개자로서 사서의 역할을 부가한다는 개념인 것이다.

3) 주제담당사서제

이미 단행본 수서에서 3~4년전부터 도입, 활용하고 있는 이 방안은 첨예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대학도서관의 자료취급과 세분되고 전

문화된 이용자들의 도서관에 대한 요구충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제별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 사서들이 우선 인문·사회·순수·응용과학 4계열로 나누어 담당하는 일종의 분업체제의 형식이다. 담당사서로 하여금 담당주제 관련 자료에 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지게 하여 기초적인 전문성을 습득하게 하고, 관련주제 선택자료를 입수하여 학과에 제공하기도 하며, 학과와 지속적인 접촉을 가짐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학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해 내어 전문성과 최신성을 요하는 연속간행물분야에 정선된 자료확충을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92년 들어와 연속간행물실에 이 제도가 도입되어 학과와의 접촉을 한번씩 가진 상태인데, 연속간행물 특성에 맞는 관련업무 및 서비스 개발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4) 연속간행물 자료개발위원회

이 위원회는 자료의 선정, 구독중지결정, 자료의 등록여부 등의 자료개발과 관련된 사항이 어떤 규정이나 원칙없이 담당사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순간순간 일회적으로 결정내려지던 결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다. 실무담당자(연임제로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복수의 인원 포함), 주무, 열람과장, 부관장, 관장으로 구성된 연속간행물 자료개발위원회는 신규구독자료 결정, 자료의 계본·등록·폐기여부 결정, 자료교환처 선정 등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여러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의사가 아닌 공동의 의견을 집약해서 결정한다는 취지밑에 운영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의견수렴하는 잠정적인 상설기구로, 연속간행물 업무가 성문화된 규정이나 원칙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결정사항을 처리하리라 예상된다.

5) 외국학술지 출판사에서 직접 구입

1992년도 부터 외국학술지 구입방법에 있어서 외국출판사와의 직접거래를 부분적으로 시작했다. 이 사항은 4억 4천만원의 도서비가 지출되는 항목으로 최근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업무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국내대행사를 통한 외국학술지 입수방식이 입찰 등 구입과정상에 사서의 역할이 배제되고, 결호 및 연착자료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자료비가 비싸게 책정되는 등의 이유로 해서 자료의 질적·양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주요인으로 판단되어 우선 인문·사회계열 413종, 255개 출판사에 대해 직거래가 시도되었다. 일반적 인 외국학술지 계약시기를 놓친 91년 12월에 92년도분 송장(invoice) 요청이 시작된 직거래 진척상황은, 현재 송장이 미도착한 10여건(10여개 출판사)이 미결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 대금지출도 2월말부터 시작되어 잡지 도착이 좀 늦은 상황이긴 하나 지속적인 독촉작업으로 결함을 보충해나갈 계획이다. 직거래에 따른 결호율, 업무의 효율성, 인적요소를 고려한 업무량 등 직거래방식 도입에 따른 재고점이 남아있기는 하나 점차 직거래대상자료를 확대하여 93년도에는 의대 분관비치자료를 제외한 모든 외국학술지를 외국에 직거래할 예정이며 부분적으로 외국의 대행사(Agency 혹은 Jobber)를 통한 구독방법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사항은 서양자료 구입업무와 관련된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자료수집의 중요한 두 분야인 선정과 입수업무에 있어서 선정된 모든 자료는 사서가 직접 입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전적인 원칙을 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했다고 판단된다.

연속간행물실에는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외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개념이 도입되었다. 가령, 무분별적으로 주고 받았던 기증·교환자료를 선별화(선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양적인 증가가 중요한

과제였던 종전의 자료에 대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대학도서관에 합당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갖춘다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 외에도 신간을 중심으로 한 국내 잡지선정에 사서의 적극적인 참여, 제본 및 등록규정 마련, 복수의 인원이 인접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임제의 도입, 거의 무관심했던 국내학회지개발 등 일련의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도입되어 시도되고 있다.

2. 업무개선의 실례

앞서 개괄적으로 소개한 개념들은 연속간행물 관련업무 전반에 도입된 개념이자 문제의 해결방안들로서, 업무 분야 특성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실례는 앞에서 제시된 방안들이 어떻게 실제 업무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1) 동양자료 구입업무

(1) 국내잡지개발

연속간행물자료 중 국내에서 생산되는 잡지의 경우, 외국에서 생산되는 학술잡지에 비해 자칫 그 중요성이 경시되어 업무가 소홀해지는 경향이 많았다. 즉 양질의 국내잡지 개발에 소극적이었으며 구입시기를 놓치거나 외국학술지에 비해 결호보충을 위한 노력이 적극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더우기 80년대 후반 이후 인문·사회과학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전문잡지가 다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여 국내잡지의 질적·양적 증가가 급격히 진척된 상황에서,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국내잡지를 향한 도서관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수동적이었다는 사실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부산대학교도서관 국내

잡지 구입관련업무 개선노력은 이와 같은 판단하에 진행된 것이다.

① 국내구입잡지 현황

'92. 3. 31현재(의대분관 제외)

년 도	감 종	증 종	구 입 종 수	비 고
1990	48	17	177	* 감종은 회비구독, 폐간 납품불능인 자료임
1991	37	18	158	
1992	4	49	203	* '92년도부터는 연중 수 시로 증종 예정임

② 문제점 및 해결방안

종래 국내잡지의 선정은 학과별 추천과 학생요망도서를 일괄 취합하여 복본 및 대학도서관에서 구독하기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자료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잡지종수의 계속적인 증가에 비해 국내잡지에 대한 배당예산이 너무 빈약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잡지 자료개발정책과 선택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전체적인 업무가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92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대안들이 모색되는데, 양질의 잡지개발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 도구(잡지의 서평란, 출판저널, 출판정보, 그리고 서점으로부터의 신간정보 등)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용자의 자료추천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인권복지위원회 등을 통한 추천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연속간행물 개발위원회를 통해 '92. 1. 27(16종), '92. 3. 23(9종) 2차에 걸쳐 신규구독결정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사서의 자료선정과정상의 참여방안으로 신간이 나오면 견본을 모두 담당사서가 직접 보고 구입검토하는 방법이 진행중에 있다. 또한 연중계약형식을 도입하여 연중에 창간되는

양질의 자료는 창간호부터 입수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며, 구입시기를 놓친 잡지는 자료의 중요도에 따라 과월호나 영인본을 구입한다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다.

(2) 국내학회지 개발

국내학회에서 간행하는 학회를 능동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다. 자료의 중요도에 비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학회지에 대한 요구가 늘어감에 따라 학회지 구독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 종전에 입수되는 학회지는 수증되어오는 학회지가 몇종 있었을 뿐이었으며 그것도 결호가 많아서 자료적인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는데, 이는 학회지 구독관련에 있어서 전국의 대학도서관 중 최하위의 수준이었다.

① 학회지 수집현황

'92. 7월말 현재

총학회지종수	본 교 수 집 현 황			비 고
약 554종 ('90 학회총람 참조)	약 300종 · 일년에 1종이 라도 수집된 학회지수	38종 · 80%이상 수 집된 종수	5종 · 회비구독으 로 99%수집 종수	회비구독 단체 명 · 산업연구원 · 한글학회 · 한국통계학회 · 대한화학회 · 한국개발연 구원

② 선정방법 및 추정예산

각 학과에 학회지 중요도에 따라 3종 이내씩 추천을 의뢰하여 61개학과가 신청한 179건 중 130학회를 선정(중복신청, 기구입분, 단권 구입가능분 제외)하여 현재 70%정도가 회비지불을 마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학회지 구입 및 학회가입절차를 밟고 있다.

국내학회지 개발에 따른 추정예산은 한 학회에 평균 70,000원씩 년회비를 계산하여 9,100,000원(년 추정예산)으로 산정해 놓고 있다.

③ 문제점 및 해결방안

대부분의 국내학회지는 가입회원이 지불하는 회비로 발간되어 학회회원에게만 배포하고 있으므로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회지의 수집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학회비 지출예산은 학교 교육비 지출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어 학교교육비 증액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회지 예산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1992년도 부터는 학회비를 도서비에서 지출하기로 관리 차원의 업무해석이 이루어지고 방침이 세워졌다.

자료의 중요도로 볼 때 학회지개발 계획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가입 학회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며 결호보완, 과월호 영인본구입 등의 방법을 통해 학회지보충에 노력할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

2) 동양자료 기증 및 교환업무

연속간행물 자료중 기증이나 교환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도서관은 자료에만 관심을 가지는 실정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증 및 교환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개념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증되어 오는 자료는 무분별적으로 도서관 자료화(제본이나 등록하는)하는 장서구성상의 허점이 있었다. 즉 도서관에 입수만 되면 그 자료는 영원히 도서관자료가 된다는 맹점이 있어온 것이다.

(1) 국내 기증잡지 수집현황

1992. 4. 30 현재(의대분관제외)

기관 간행물	논 문 집	학회 간행물	계
732종	1,418종	230종	2,380종

* 1종이라도 수집되었으면 종수에 포함되었음

(2) 기증·교환관련 업무의 문제점

기증자료중에는 대학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기증되는 자료를 무조건 수집한다는 것은, 장서구성상 비원칙적이며 자료관리상 비효율적이다. 또한 기증된 자료를 선별할 경우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가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의해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구입자료에 비해 기증되는 자료는 결호율이 상당히 높는데, 기증되는 자료는 대부분 한정부수의 비매품으로 발행되므로 적절한 시기에 기증의뢰와 결호신청을 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의 경우 자료기증·교환처가 무려 200여곳이 되어 업무규모가 방대하여 담당업무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3) 기증 및 교환 관련업무의 개선

① 부산대학교도서관은 기증·교환되는 자료의 입수와 선별상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증·교환 관련 업무를 엄선하여 추진하는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수증된 자료중에서 불필요한 자료까지 열람, 제본, 등록하여 전체장서의 질적 저하와 업무의 증가를 가져왔던 점을 수정하여 자료에 대한 선정작업을 실시하여 대학도서관에 있어야 하는, 있어도 좋은 정선된 자료만을 관리한다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②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앞서 지적한 선정기준인 것이다.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연속간행

물 제본·등록·폐기규정을 마련중에 있다. 지난 7월 25일 단행본 등록, 연속간행물의 제본·등록, 자료의 폐기규정안에 대한 관내 세미나가 있었다. 도서관에 입수되는 모든 자료는 그 내용의 검증없이 제본·등록되던 모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질의 장서구성을 위해 자료를 제한적으로 제본·등록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내용이었다. 이것은 도서관에 입수된 자료라 하더라도 부산대학교 도서관 장서로 합당한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일관되게 처리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일로서, 양질의 장서구성을 위한 2차, 3차에 걸친 자료여과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구입되는 자료에도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 자료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용·보관하다 폐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자료의 선별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증·교환 관련업무 담당자에 의해 이 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업무규정 혹은 제본·등록기준들이 일반적이고 원칙적이며 물리적인 요소에만 초점을 맞춘데 반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 마련중인 규정들은 주제에 따른 차별적인 기준, 자료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원칙, 자료의 유용도에 따른 보관기간 등이 기술되어 있어 업무에 실제적인 기준이 되는 규정이 되리라 기대된다.

③ 그리고 기증되는 자료는 간기가 분명치 않아 결호유무를 판단하는데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담당사서로 하여금 기증 및 교환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지속적인 자료수집을 꾀하도록 하였다.

④ 또한 200곳에 달하는 국내 기증처를 대폭 축소시키는 대신에 수증·교환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양질의 자료를 개발하는데 주력하는 계획 또한 병행하게 되었다. 교환처를 재고하여 정비하는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국립종합대학교, 사립종합대학교('89기준으로 7종 미만

교환처는 제외), 부산에 위치한 대학, 단과대학, 기관 순에 의해 조정하여 '92년 전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⑤ 이 외에도 기증·교환관련 업무는 업무기록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기에 인사이동시 업무인계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기록유지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기증·교환자료 목록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들어오는 양질의 기증·교환자료에 쉽게 접근하도록 할 계획이다.

3) 서양자료 구입업무

대학내 교수·연구진의 학문활동은 점점 세분화되어 가고 있으며 보다 자료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전달매체인 연속간행물, 특히 국내에 비해 학문적, 경험적 진척이 빠른 외국의 연속간행물에 대한 요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더우기 본도서관의 전체 도서구입비 중 절반이 넘는(1991년 도서비 예산집행현황이 단행본:학술잡지 비율이 40:60, 1992년도 35:65으로 계획되어 있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연속간행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업무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1) 서양자료 구입업무의 문제점

① 1991년까지 서양학술지 관련 업무는 이분화되어 처리되었다. 즉 자료의 이용, 열람과 보존업무는 열람과 연속간행물실에서, 자료의 선정과 구입업무는 수서과 서무에서 담당하는 이중 구조였으므로 업무간 상호연계가 원활치 못하였다. 더우기 담당자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담당사서는 전문적인 업무경험들이 축적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② 구입되는 서양학술지의 선정은 학과 교수진의 추천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즉, 구입되는 서양학술지는 전부 학과 교수진의 요구에 의해 선정, 교체되는데, 이럴 경우 전체 장서의 균형을 고려한 자료선정이 되기보다는 개인적인 필요성에 근거한 결정이 내려지므로 자료구성이 산만해 질 우려가 컸다.

③ 자료구입관련 업무를 국내 대행사에서 대행하는 간접거래방식이었다. 자료구독의 간접거래방식은 대행사의 불성실한 처리로 인해 연착과 결호가 많이 발생하고 구독료가 비싸게 책정된다. 또한 구독하는 잡지에 대한 정보가 직접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신속정확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2) 서양자료 구입업무 개선

앞서 지적한 문제점을 요약해 보면, 사서는 연속간행물업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며 자료입수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92년을 기점으로 서양학술지 구입업무는 조직적인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는데 중요한 사항들은 서양자료구입업무를 담당사서에게로 일원화시키고, 자료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자료를 조직적으로 정선하여 선정과정에 사서의 역할을 확대한다는 개념을 도입하고, 자료선정 등의 지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자료개발위원회의 결정을 통하는 방안 등인데 이미 앞에서 많이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서양학술지 구입업무에서 특징적인 부분인 출판사와의 직접거래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① 외국학술지수집의 부실함에 대한 논의가 몇년전부터 도서관내·외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오다가 1991년 말에 국내대행업자를 통한 입수방법이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주요인이라는 판단에 결국 도달하게 된다. 즉, 국내업자를 통한 간접거래 방식에서는 자료처리에 궁

극적인 책임이 있는 사서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주도성을 띠지 못하게 되며, 대행업자의 불성실한 처리로 인해 결호율이 높다는 등의 잡지구성상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실무자 차원에서 이에 대한 준비가 지속적으로 있어온 것은 아니고, 1991년말 신입총장과 신입관장에 의한 위로부터의 결정으로 외국출판사와의 직접거래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② 외국출판사와의 직접거래를 위한 준비작업이 없었기에 1992년 구독자료에 대한 직거래 가능성 여부와 대상자료 범위결정이 한동안 논의되었다. 그래서 결국 1992년 구독자료 전량을 모두 직거래하기에는 무리와 위험이 따르므로,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실무사서들이 가까이서 자료를 다룰 수 있으며, 구독관련 업무가 다양하여 기술훈련에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되는 본관비치 인문·사회계열자료에 한해서 직거래결정이 내려졌다. 구입방법에 따른 구입분 서양학술지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92. 1월 현재

구분	자료구분	종수	비고
직거래	인문·사회계열 본관비치 자료	413	
간접거래	자연계열 과학분관비치 자료	554	입찰을 통해 업체 선정
	의학계열 의과대분관비치 자료	301	
	서지류 서지조사실비치 자료	33	
계		1,301	

③ 직거래 대상자료 주문과정

1. 1991. 12. 10자로 직거래 대상자료 413종에 대한 255개 출판사에 1차적으로 송장(invoice)요청을 하게 되는데 FAX로 47개, 우편으로 208개 출판사에 편지를 발송하였다.

- ㄴ. 1992. 3. 2자로 송장 미도착 96개 출판사에 대해 독촉장을 보냈다.
- ㄷ. 1992. 4. 28자로 송장 미도착 37개 출판사에 대해 재독촉장을 보냈다.
- ㄹ. 1992. 7. 21자로 송장 미도착 10개 출판사에 대해 재독촉장을 보냈다.

④ 지출관련 사항은 앞서 소개한 단행본 수서업무에서 밝힌 과정과 동일하나, 연속간행물은 출판될 때마다 출판사에게 날권으로 발송하기에 세관통관업무가 여기서는 생략된다.

- ㄱ. 지출비용이 \$1,000이하일 경우에는 바로 외환은행을 통해 환금 후 송금수표를 출판사로 우송하고 출판사에서 송금수표를 받으면 구독계약이 체결된다.
- ㄴ. 1건(1개 출판사) 지출비용이 \$1,000을 넘으면 외환관리규정에 의해 문화부 추천 과정을 거쳐야 국외 지출이 가능하며 추천승인을 얻고 나면 \$1,000이하의 처리과정과 동일하다.
- ㄷ. 지출관련 구비서류: 구입품의서, 물품명세서, 외환송금신청서, 무역외지급(확인)서, 송장, 수입추천장(\$ 1,000이상일 경우)

⑤ 서양학술지 직거래 방식 도입에 따른 과제와 전망은 다음과 같다.

- ㄱ. 직거래방식 확대를 염두에 둔 준비작업이 필요하다. 직·간접 거래자료에 대한 출판사항 및 주문사항 파악 등을 위한 서지도구도 확보해야 한다.
- ㄴ. 1992년도 시행결과에 따라 직거래 유지여부 및 대상자료 확대를 고려해야 하는데 결호율, 효율성, 폭주하는 업무로 인한 인적 요소의 안배 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ㄷ. ㄴ항과 관련한 대안으로 직거래 방식을 변형하여 외국대행사

(Agency 혹은 Jobber)와 거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93년부터는 의대분관분을 제외한 전량을 외국에 직거래할 예정이다.

(3) 앞으로의 과제

대학내에서 서양학술지에 대한 요구가 지대한 만큼 서양학술지 관련업무가 이용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단계적이긴 하나 자료 입수과정에 치중되어 있는 서양학술지 관련업무가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대두된다. 주이용자 집단인 학과 교수진들과의 접촉을 자주 가짐으로써 이용자 집단의 자료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서양학술지관련 이용자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방안외에,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기간 결호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하는 점 또한 구입분 서양학술지 관련 업무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4) 서양자료 기증·교환업무

서양자료의 기증·교환업무란 외국에 있는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자료교환업무를 의미한다. 이 업무를 도서관에서는 국제교환이라 하는데, 구입이 힘든 양질의 외국 학술지를 수집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장점과 함께 국내 기관에서 발행하는 자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종의 홍보활동적인 요소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서 발행하는 대부분의 자료가 교환에 의해 배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적극적인이고 체계적인 국제교환업무의 수행은 학술정보의 수집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1) 국제교환 현황

아래의 현황은 부산대학교도서관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교환업무현황으로, 과거에 진행되었던 근거는 있으나 몇년동안 자료가 입수되지 않고 있는 교환처는 일단 제외시킨 것이다. 현재 몇개의 교환처와는 교류가 활발하나 거의 대부분이 본 도서관측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자료교환이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 명	교 환 처	계	합 계
일 본	東京大學의 29개처 國立國會圖書館 東方學會의 연구기관 3개처	34	49
중 국	國立臺灣大學의 10개처 國立中央圖書館	12	
미 국	Univ. of California(Berkeley)의 2개 처	3	

(2) 국제교환업무의 문제점

① 교환업무에 관한 기록의 미비로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가 불가능하였다. 교환자료에 대한 서명, 권호, 년도 표시 등의 관련서지사항 등을 기재한 기증·수증기록이 없어, 특정 교환처와의 교환내용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힘들어 업무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환처에 대한 구체적이며 정확한 주소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서신교환시 애로가 많다. 예를 들어, 일본대학의 경우 도서관이 아닌 부속 연구소와의 자료교환이 과거에 있었으나 정확한 주소의 파악없이 수령처리해버려 교환처와의 서신교환과정에서 명확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② 도서관은 국제교환업무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취급했느냐는 것이다. 국제교환업무가 열람부서에서 행해지므로 인해 자료이용을 위한 배열과 정리, 기록, 이용자열람 등 일반적인 업무만이 중요시되어, 장

기적인 계획 추진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업무는 등한시된 경향이 있다. 결국 국제교환업무는 자연적으로 미온적인 상태가 누적되어, 저절로 보내져오는 자료만 수동적으로 받고 이용자들의 요구가 빈번한 자료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다.

③ 구미지역교환처가 부족하여 구미지역의 우수한 대학과의 자료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수한 학술자료의 포괄적인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산대학교의 간행물이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미지역의 한국학 전문 기관과의 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단행본자료와 연속간행물자료의 교환업무의 일원화로 체계적인 교환업무가 불가능하였다. 수서실과 연속간행물실의 자료교환업무의 일원화는 특정교환처와의 이중적인 교환관계를 맺게 하는 경우도 발생시킨다. 더욱이 지금까지 단행본 자료의 국제교환은 부산대학교요람(영문판) 한 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국제교환업무의 일원화가 시급히 요청되는 실정이다.

⑤ 국제교환으로 수집된 학술자료에 대한 열람용 서지도구가 없어 이용자들에게 자료소장여부를 제공하지 못해 자료의 이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3) 해결방안 및 향후계획

①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조직을 갖추어 업무체계의 계속성을 유지한다. 교환처별 서명표시, 권호표기, 발송일자 등의 필요사항을 구비한 기·수증기록을 정비하고 교환처에 대한 파악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 그리고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교환업무를 일원화하여 연속간행물실에서 총괄하도록 업무체제를 재정비한다.

② 교환처를 재정비하여 기존의 교환처와 선정자료에 대해서도 타

당성을 조사한다. 외국의 지명도 있는 대학과 교환관계를 체결하기 위해, 세계대학년감이나 각국의 대학요람 등을 이용하여 교환대상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선별하고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본교의 교수나 외국인교수로부터 관련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내 주요대학의 국제교환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교환업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참조하는 방법을 적극 도입한다.

③ 특히 적극적인 교환관계가 예상되는 한국학연구전문기관이 있는 구미지역의 주요대학을 ②항의 방법으로 선정하여 관계를 맺는 한편 그 기관에서 발행되는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도록 한다.

④ 부산대학교도서관이 80년대 중반에 국제교환업무가 활발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과거 수서과에서 담당하던 국제교환관련 기록을 통해 현재의 업무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⑤ 교환으로 입수된 학술지의 이용활성화 방안으로 기존의 책자형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에 교환자료목록도 포함시킨다.

⑥ 부산대학교에서도 대학간행물의 질적향상을 꾀함과 동시에 발행간기를 준수하며, 영문판 간행물을 늘이고, 국문판일 경우에도 영문 초록을 바탕으로 연속간행물의 교환목록을 재작성할 필요가 있다. 상대교환처에 부산대학교 간행물에 대한 상세한 소개를 할 수 있다면 상대교환처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발시켜 국제교환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Ⅲ. 덧붙이는 말

연속간행물업무의 변화들이 여러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되어 혼란스러운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실제 업무에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은 입체적으로 조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즉 연속간행물실 관련 업무의 주도적인 역할은 사서가 하며 자료는 무분별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일정한(공식화된) 기준에 의해 엄선하며 이용자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반영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현장화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부분중 많은 사항들은 이미 오래전에 기본적으로 진행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연속간행물실의 업무조직과 내용이 상대적으로 매우 후진적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연속간행물실의 변화노력은 비록 초보적이고 미완성된 모습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연속간행물실과 사서가 담보해 내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특수한 상황과 단계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찾아 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도서관의 전문성 획득의 시발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외국출판사와 직접거래를 하는 것만이 사서직이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전문적인 것이며 도서관이 꼭 해야할 전문적인 업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직거래를 함으로써 파생하는 요소들, 예를 들어 업무의 주도적인 역할이 자연스럽게 사서에게로 이전되고 사서의 자료접근, 구입, 서비스능력이 급격히 배가되고 결호없는 학술지구성을 피할 일련의 방안이 된다는 점 등은 사서직과 도서관의 전문성확보라는 문제접근에 하나의 보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오늘 발표주제를 ‘연속간행물 수집업무 전문화의 문제’로 정한 것은 대학도서관서비스 전문화의 문제가 결국은 자료에 기초하여 해결점을 찾게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즉, 대학내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하는 본질적인 역할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비스의 내용으로 평가되며, 서비스되는 것은 결국 양질의 자료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춘 개념들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도 발견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물론 현상적으로 볼 때 현재의 업무가 다소 자료수집분야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으나, 부산대학교도서관의 최근의 변화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것이기에 일시적인 업무의 불균형은 불가피하다는 판단 또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전문화된 이용자 서비스에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실례를 지적할 수 있는데, 앞서 소개한 ‘도서관의 이원체제 확립방안’이 그것이다. 이용자집단과 서비스의 전문화·차별화를 골자로 한 도서관의 이원체제 계획은 현재의 자료 수집업무에 대한 치중이 궁극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 지향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보기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과연 연구도서관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질 우리의 서비스가 주제적 배경이 없는 사서들의 인적구성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을까하는 구조적인 과제를 남긴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 땅의 대부분의 도서관이, 특히 대학도서관이 해결해야 할 하나의 큰 문제로 남는 것이다.

부산대학교도서관의 변화를 본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길은 부산대학교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구조적으로 접근하여야 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우리의 변화가 단순히 어떤 특정부분이 잘못되어 그 부분만을 수정하는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도서관 전반의 질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형상화(업무현장에서의 실천)와 개념화(실천의 전후에서 실천을 이끄는 방향)는 우선순위가 있는 일직선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

나라 상호작용을 통해 점차 발전되고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최근의 변모에 불완전하기는 하나 본질적인 변화라 의미부여하는 것은 이런 형상화와 개념화작업을 부산대학교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이다. 현장은 이론을 배우고 이론은 현장을 바탕으로 한다는 실천적인 작업이 부산대학교 도서관 주변에서 활발히 진행된다는 사실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 최선의 도서관을 위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노력과정은 형상화와 개념화의 작용이 도서관과 사서직의 전문성확보라는 과제에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그것은 어떤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능하게 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표본이 된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1. “연속간행물업무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미간본 『부산대학교 발전 기획세미나 시리즈』 발표원고(1992. 1. 31).
2.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창간호(1989. 4).
3.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2호(1990. 3).
4. 『도서관소식』(부산대도서관), 제3호(1992. 8).
5. “부산대도서관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 미간본 『제1차 전국사서협회 부산·경남지역분회 대학도서관분과 세미나』 발표원고(1992. 8. 1).